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루마니아

목차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일반

1.국가개요	4
2.한국과의 관계	5
3.경제현황	9
4.정치	11
5.주요산업	12

II.무역

1.수출입	13
2.한국과의 수출입	22
3.수출 유망항목	25
4.무역협정	26
5.수입규제 및 관세	32
6.통관 · 물류	47

III.투자

1.투자환경	51
2.외국인직접투자	55
3.한국기업 투자	56
4.투자진출방식	60
5.외환	67
6.노무	68
7.세무	71
8.지식재산권	73
9.청산 및 철수	74

IV.참고정보

1.시장특성	75
2.비즈니스 에티켓	77
3.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80
4.현지 진출 성공사례	80

5.출입국 안내	81
6.유관기관	82
7.물가정보	84
8.출장정보	86
9.생활정보	88
10.KOTRA 무역관 안내	93
11.전시회 정보	100
	101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루마니아 (Romania)
면적	238,391 km ² (자료원 : Romania's National Agency for Cadastre and Real Estate Advertising, 2018 기준)
수도	부쿠레슈티 (Bucuresti)
인구	21,922,000 명 (자료원 : 루마니아 통계청, 2023년 2월 1일 기준)
민족(인종)	루마니아계(83.46%), 헝가리계(6.1%), 집시(3.09%), 기타(1.21%), 확인불가(6.14%)
언어	루마니아어
종교	정교회(81.0%), 개신교(5.8%), 로마 가톨릭(4.3%), 기타(8.9%)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약<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가진 대륙성 기후. 기온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여름의 일교차가 크고 비가 적게 내리는 편이다.○ 상세<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평균기온<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철 평균 기온 : 22°C ~ 24°C, 겨울철 평균 기온 : -3°C 이하* 부쿠레슈티: 평균최저기온 -5°C(1월) ~ 평균최고기온 29°C(7~8월)2) 강수량<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인 강수량은 적은 편이며,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부쿠레슈티 연평균강수량: 약 530mm/ 고지대 연평균강수량: 약 750mm/ 다뉴브 삼각지 연평균강수량: 약 370mm- 대부분의 우천은 5~6월에 집중된다.3) 적설량<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적설일수는 대략 30일로, 겨울엔 대부분의 국토가 눈에 덮인다.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총리 :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0-03-30 (자료원 : 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90-12-04	경제, 과학, 기술협력 협정	
체신부간 협력	1991-05-10	한-루 체신부간 협력 약정	
연합통신	1991-06-12	ROMPRES 협력 약정	
문화협정	1992-06-23	문화협정	
양해각서	1993-12-09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 면제 양해각서	
방지협정	1994-10-13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 협정	1994-12-15	투자보장협정	
양해각서	1996-05-19	일반사증 면제 양해각서	
협력약정	1996-09-18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루마니아 원자력 통제위원회 간 협력약정	
양해각서	1996-10-12	한-루 외무부 간 협력 양해각서	
협력 약정	1997-05-08	양국 과학기술부 간 협력 약정	
항공협정	1997-07-28	항공협정	
KIET	1997-10-24	루마니아 대외 무역센터 간 협력 약정	
협력 약정	1998-11-17	한-루 특허청 간 지식재산권분야 협력 약정	
협력 약정	2003-06-02	한국 산자부-루마니아 경제통상부 간 원자력분야 협력 약정	
설치 약정	2004-05-14	한국 산자부-루마니아 경제통상부 간 산업협력위 설치 약정	

원자력협력협정	2004-09-21	원자력협력협정	
정서서명	2005-10-10	경제, 과학, 기술협력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협력 약정	2005-10-14	한-루 정통부 간 IT분야 협력 약정	
협력 약정	2005-10-19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루마니아 중소기업진흥청 간 협력약정	
협력 약정	2006-09-25	한국한수원-루마니아 원자력공사 협력 약정	
양해각서	2006-10-09	양국정통부 간 IT 및 통신분야 협력 양해각서	
협정 의정서	2008-01-10	투자보장 협정 의정서	
공동선언 서명	2008-09-25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	
사회보장협정 서명	2008-09-26	한-루 사회보장협정 서명	
사회보장협정 체결	2008-09-26	한-루 사회보장협정 체결	
양해각서	2008-10-08	한-루 공공조달 협력 양해각서	
협정발효	2010-07-16	한-루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력합의서	2012-05-17	한국 기재부-루마니아 재무부 간 KSP 협력합의서	
양해각서	2012-06-26	한국 울산상의-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 간 무역 증진 및 경제교류 양해각서	
양해각서	2012-07-13	한국인터넷진흥원-루마니아 침해사고대응팀 정보보호협력 양해각서	
양해각서	2012-08-20	한국 행안부-루마니아 정보통신사회부 간 전자정부협력 양해각서	
양해각서	2013-09-03	경북도-루마니아 농림과학원 간 농업협력 양해각서	
MOU	2014-10-20	한-루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MOU	
MOU	2015-07-03	한-루 항만개발 협력 MOU	

한국교민 수

329 명 (자료원 : 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산업협력위(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9차례
 -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측 경제부 간 협의체로서 차관급 수석대표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주최(2016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제8차 회의 개최)
- 과학기술공동위: 2차례
 -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와 루측 국립과학연구청 간 격년(2007년, 2009년) 개최(국장급)
- 경쟁정책협의회(Competition Council Meeting) 4차례 개최
 - 양국 경쟁정책위원회 간, 제4차 회의(2004년 11월 부쿠레슈티)
- 민간경제협력위원회(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between Chambers of Commerce) 5차례 개최
 - 제5차 회의(2006년 9월 부쿠레슈티)

경제

- 2022년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수출은 526백만 달러, 수입은 788백만 달러로, 26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양국의 교역량은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무역적자 폭은 커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루 수출액은 평균 약 5억 불대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루마니아 사이의 직접 교역량은 적지만, 인근국의 한국기업 생산거점으로부터 수입되고 타 국가의 바이어를 통해 구매하는 간접 수입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직접 교역량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유럽 시장 내 생산비용 상승 및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존 V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대안으로 새로운 생산거점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높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 진출지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

- 한-루 문화 교류는 2007년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위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루마니아는 동유럽 지역 내에서도 한류 현상이 강한 곳이다.
 - 루마니아 내 한류는 2009년 대장금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이후 다수 소개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중장년층으로 저변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K-POP의 인기가 고조되면서 루마니아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 루마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인물은 단연 방탄소년단(BTS)으로 팬클럽인 Bangtan Boys Romania의 경우 루마니아내 한류 동호회 중 최대 규모인 8,2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 루마니아 국립 부쿠레슈티 대학에는 한국어학과가 부전공으로 존재하며, 사립학교인 루마니아 아메리카 대학교에도 한국어과가 존재

한다. 또한, 제2도시 클루지나포카의 국립 바베쉬-볼여이 대학교에서는 한국어학과가 전공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학과들은 해가 갈수록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이외에도 2021년 양국 간 백신 교류를 통해 경제 정치 외적으로 다양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3.8	-3.7	5.2	4.8	
명목GDP (십억\$)	251	251.4	284.1	291	
1인당 GDP (PPP, \$)	31,818	32,383	35,481	38,981	
1인당 명목 GDP (\$)	12,860	12,930	14,700	14,790	
정부부채 (% of GDP)	35.1	46.9	48.9	48.3	
물가상승률 (%)	3.8	2.6	5	13.8	
실업률 (%)	4.9	6.1	5.6	5.6	
수출액 (백만\$)	76,872	70,714	87,375	96,679	
수입액 (백만\$)	96,545	92,127	116,186	132,478	
무역수지 (백만\$)	-19,673	-21,413	-28,811	-35,799	-
외환 보유고 (백만\$)	32,936	37,379	40,475	46,636	
이자율 (%)	2.5	1.75	1.75	6.7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4.24	4.24	4.16	4.69	

<자료원 : 루마니아 중앙은행, EIU, Global trade Atlas, Country Economy>

나. 경제 동향

- 2022년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은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4.8% 성장률을 기록
-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루마니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유럽국가들의 높은 에너지 비용, 금리상승, 성장세 약화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차세대 EU 프로그램에 따른 EU자금 유입으로 인해 투자는 밝은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다. 경제 전망

- 루마니아 2023년 경제성장률 주요 기관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 2.18%(IMF), 2.2%(EC), 2.6%(WB)
-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 인플레이션은 평균 10.2%에 달할 것으로 예상 ('22년 평균 13.8%, 12월 기준 16.4% 기록)

4. 정치

가.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한 내각책임제
 -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로 상징적인 지위에 있지만 외교 정책, 특정 법령 서명,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 승인, 정부 수반(즉, 총리) 지명 등의 책임을 위임 받는다.
 - 루마니아는 민주적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 두 개의 의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다.
- 현재 루마니아 내 대립 정당(PNL과 PSD)이 헝가리 소수 민족 정당과 함께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는 202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PNL(국민자유당, 중도우파), PSD(사회민주당, 중도 좌파)

나. 최신동향

- 루마니아 정부의 중요 이슈 :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결과 관리(루마니아 에너지 안보 위협 및 난민 증가 등 초래)
 -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와 두 번째로 긴 국경을 공유한다.
 - '26년 생산이 시작될 예정인 흑해의 넵툰 딥(Neptune Deep) 유전에서 가스를 추출하면 루마니아는 가스를 자급자족하고 역내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또한 루 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을 진행 중이며, 미국은 루마니아에 두 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총 1/3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완공 예정일은 2030년이다.
- 2024년 의회, 대통령 및 유럽 의회 선거가 예정
 - 루 전략분석연구소(LARICS)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정된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의 약 2/3는 합동 단일 정당이 아닌 개별 정당이 독립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3.9.11-25 기간 전국적으로 1,003명 표본으로 실시
 - (2024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무소속 후보 미르체아 제오아너 現 NATO 사무총장이 31.3%로 1위를 기록, 사회민주당(PSD) 지도자 치올라쿠 총리는 22% (4위), 국민자유당(PNL) 지도자 치우커 상원의장은 20% (5위)을 기록함
 - (2024 총선 지지도 조사) △사회민주당(PSD) 32% (1위), △국민자유당(PNL) 23.9% (2위), △개혁성향의 루마니아 구국연합(USR) 14.7% (3위) △극우 성향인 루마니아 결속동맹(AUR) 14.2% (4위)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NATO 회원국 : 2004년 가입
- EU 회원국 : 2007년 가입
 - 2022년 쉥겐 지역 가입 실패

라. 정책 · 법령

법안 통과에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법률 채택 절차는 양원에서 모두 동일하며 헌법과 의회 상임 명령에 의해 규제된다. 입법 절차의 주요 단계에는 입법 발의, 국회 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토론, 표결, 중재, 헌법 통제, 법률 공포 등으로 이뤄진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루마니아는 중부 및 동유럽에서 규모있는 자동차 생산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농업 산업 역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 자동차 산업은 루마니아 국내 총생산의 14%, 수출의 26%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루마니아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와 함께 동유럽 자동차 허브 국가를 구성하고 있음
 - 루마니아 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르노다치아(프랑스), 포드(미국) 2개사로, 완성차 기업들과 서유럽 및 인근 지역의 완성차 공장 납품을 위하여 설립된 Tier 1 및 Tier 2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다수 소재
- 농업 산업
 - 루마니아 인구의 약 20%가 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 (EU 회원국 평균 4%)
 - 농업은 루마니아 GDP의 4.4%, 곡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함(2022년)
 - 루마니아는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주로 수출하며, 농산물 가공품 수출은 크지 않음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루마니아의 2022년 교역액은 총 2,2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8% 증가하였다.
전세계 수출액은 966억 달러, 수입액은 1,32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및 인근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2년 상위 10개 수출국 중 7개국이 유럽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7,510,213,766
2	이탈리아	8,849,076,047
3	프랑스	5,361,309,872
4	헝가리	3,754,756,230
5	영국	2,972,530,500
6	불가리아	2,773,284,582
7	폴란드	2,750,184,118
8	터키	2,588,289,074
9	네덜란드	2,445,883,431
10	체코	2,437,413,12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6,312,207,256
2	이탈리아	7,787,167,385
3	프랑스	4,804,570,560
4	헝가리	3,581,662,489

5	폴란드	2,673,606,143
6	네덜란드	2,591,959,537
7	불가리아	2,588,937,090
8	터키	2,489,963,994
9	영국	2,424,160,665
10	체코	2,220,929,63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8,286,353,058
2	이탈리아	9,421,332,463
3	프랑스	5,680,316,287
4	헝가리	5,045,871,414
5	폴란드	3,569,038,756
6	불가리아	3,459,539,765
7	튀르키예	3,160,984,111
8	네덜란드	3,148,701,294
9	체코	2,795,449,260
10	영국	2,737,806,247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6,566,850,202
2	영국	4,303,380,489
3	미국	3,652,698,210
4	튀르키예	3,111,783,850
5	폴란드	2,870,853,918
6	스페인	2,710,340,764
7	체코	2,499,676,830
8	네덜란드	2,440,991,010

9	우크라이나	1,105,670,107
10	스위스	963,464,19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9,609,041,438
2	이탈리아	8,931,844,500
3	헝가리	6,811,533,715
4	폴란드	5,791,711,301
5	중화인민공화국	5,118,362,369
6	프랑스	4,781,166,741
7	터키	4,419,880,736
8	네덜란드	3,821,783,929
9	러시아	3,513,872,193
10	오스트리아	3,035,341,035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9,259,399,870
2	이탈리아	8,323,723,002
3	헝가리	6,750,931,945
4	중화인민공화국	5,783,759,549
5	폴란드	5,686,068,836
6	프랑스	4,328,061,319
7	터키	4,070,027,655
8	네덜란드	3,583,834,458
9	오스트리아	2,957,708,255
10	체코	2,938,295,87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3,542,735,935
2	이탈리아	10,485,093,740
3	헝가리	7,992,169,780
4	폴란드	7,283,779,367
5	중국	6,406,690,700
6	튀르키예	5,864,351,032
7	러시아연방	5,623,562,839
8	프랑스	4,981,746,564
9	불가리아	4,951,210,891
10	네덜란드	4,639,231,44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9,111,095,532
2	폴란드	6,520,671,162
3	튀르키예	6,343,657,676
4	네덜란드	3,682,556,978
5	우크라이나	3,516,707,132
6	체코	3,304,362,044
7	스페인	2,615,953,022
8	스위스	1,790,005,158
9	미국	1,264,106,817
10	그리스	1,224,585,052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2년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HS code 87) 및 전기기기(HS code 85) 등이다.
- 주요 수입 품목은 의약품, 석유, 옥수수 등으로 수출 품목에 비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644,580,600
2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2,439,632,766
3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2,347,640,897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1,941,889,704
5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864,927,257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95,331,613
7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1,323,573,154
8	100199	기타	1,239,740,921
9	940190	부분품	1,198,898,576
10	100590	기타	1,192,162,57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2,618,727,942
2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346,348,565
3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948,536,977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1,819,353,084
5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565,404,774
6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1,242,807,375
7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1,138,233,415
8	100590	기타	1,069,873,970

9	100199	기타	922,442,150
10	870829	기타	893,446,17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2,994,065,227
2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382,128,660
3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1,983,213,745
4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842,698,364
5	100199	기타	1,786,402,807
6	100590	기타	1,770,453,713
7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635,676,610
8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1,492,498,161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289,351,333
10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1,158,439,45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2,033,473,701
2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938,598,040
3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700,066,634
4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497,570,272
5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1,050,924,880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908,378,810
7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768,995,808
8	100590	기타	705,538,051

9	851671	커피 · 차를 끓이는 기기	665,766,602
10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602,135,910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102,503,021
2	300490	기타	2,545,239,068
3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238,413,956
4	271019	기타	1,214,303,587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21,107,623
6	392690	기타	911,234,648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855,523,732
8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53,177,247
9	732690	기타	709,573,625
10	853890	기타	686,634,16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2,734,006,866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272,505,177
3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381,434,736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70,023,778
5	271019	기타	891,035,798
6	392690	기타	857,049,823
7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761,838,696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58,101,961
9	853890	기타	657,304,031
10	854239	기타	636,363,89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417,853,326
2	300490	기타	2,858,932,054
3	271019	기타	1,819,660,432
4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529,066,906
5	271600	전기에너지	1,153,444,559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48,738,632
7	392690	기타	1,044,457,872
8	271121	천연가스	971,949,366
9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63,035,097
10	854239	기타	801,800,00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448,122,334
2	271019	기타	1,112,844,447
3	100590	기타	973,577,509
4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75,783,050
5	854239	기타	582,036,802
6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524,381,116
7	853890	기타	469,697,622
8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64,575,750

9	392690	기타	461,896,278
10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446,183,209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2022년 우리나라의 루마니아 수출은 526백만 달러, 수입은 788백만 달러로, 26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나. 한국의 루마니아 교역 현황

- 한국의 루마니아 교역 현황

'22년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 한국의 루마니아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562	455	107
2020	505	531	-26
2021	588	627	-39
2022	526	788	-262
2023	444	787	-34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o 수출품목

- 승용차, 아연도강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이 한국의 루마니아 주요 수출품목이다.

o 수입품목

- 사료, 곡류, 직물제의류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 루마니아에는 서유럽 패션 브랜드의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 한국의 루마니아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43	0	42
2	6134	아연도강판	37	0	37
3	2140	합성수지	29	3	25

4	7420	자동차부품	24	103	-80
5	6133	냉연강판	26	0	26
6	3203	타이어	13	9	3
7	6132	열연강판	21	0	21
8	8115	유선통신기기부품	17	13	3
9	7414	전기자동차	6	0	5
10	7232	금속성형가공기계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44	0	44
2	6134	아연도강판	37	0	37
3	2140	합성수지	26	3	23
4	7420	자동차부품	19	67	-48
5	6133	냉연강판	18	0	18
6	3203	타이어	14	10	4
7	6132	열연강판	14	0	14
8	8115	유선통신기기부품	14	16	-2
9	7414	전기자동차	14	0	14
10	7232	금속성형가공기계	13	0	1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36	사료	0	42	-42
2	4412	직물제의류	0	147	-148
3	0111	곡류	0	113	-114
4	7420	자동차부품	24	103	-80
5	1130	동광	0	0	0
6	5113	가방	0	32	-33

7	4411	편직제의류	1	23	-23
8	8422	전동기	0	17	-18
9	8115	유선통신기기부품	17	13	3
10	7112	펌프	6	21	-1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36	사료	0	184	-184
2	4412	직물제의류	0	117	-117
3	0111	곡류	0	72	-72
4	7420	자동차부품	19	67	-48
5	1130	동광	0	36	-36
6	5113	가방	0	24	-24
7	4411	편직제의류	0	20	-20
8	8422	전동기	0	19	-19
9	8115	유선통신기기부품	14	16	-2
10	7112	펌프	4	16	-1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액 (US\$백만)	455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8
선정사유	EU기금 활용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기기 수요 확대, 한국산 의료기기는 유럽 및 미국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유사한 수준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시장동향	EU기금 활용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기기 수요 확대 예정		
경쟁동향	2021년 기준, 수입 상위 10개국 중 9 국가는 EU회원국이며(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중국이 예외적으로 3위(8%)를 차지		
진출방안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병원 입찰에 참여하는 주요 벤더 발굴을 통한 진출 모색		

○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 (US\$백만)	288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7
선정사유	K-뷰티 제품에 대한 유통업체, 소매 채널, 소비자 수요 증가, 클린 및 비건뷰티 관심 증가		
시장동향	루마니아 뷰티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색조/남성화장품/선케어 등 제품 수요 증가가 두드러짐		
경쟁동향	다국적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임(로레알 루마니아, P&G, 비셀도르프, 유니레버 등)		
진출방안	현지 온라인 마켓 벤더 및 유통업체와 거래를 통한 시장 진출 모색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지능형 교통체계

선정사유	루마니아 정부는 인프라 확장 및 스마트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교통시스템 도입을 추진중		
시장동향	EU기금 인프라 개선 및 국가 자체 프로젝트 다수 계획		
경쟁동향	주로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 참여 및 최종 계약자로 낙찰		
진출방안	현지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2015.12.13. 정식 비준, 2023.10.31. 한-EU 디지털 무역협정협상 개시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 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 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6.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5월)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름(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발효,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2023.10.28. 일-EU 데이터 이동 협정 체결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 중(2022.12. 협정 현대화 협상 완료)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1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19.6	EU-키르기스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중, 4차 TTC: 2023.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1.6.15)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함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2022.9. EU-ASEAN 경제장관회담 통해 디지털 경제, 녹색 기술,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 공동실무그룹 합의 2023.6 공동 실무그룹 미팅	EU-아세안 공동 실무 그룹 발족 (2017.3)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2007 ASEAN 협상지침 기반) 2023.3.15. 협상 재개 협상 중, 직전 협상: 2023.9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2007 ASEAN 협상지침 기반) 협상 중, 직전 협상: 2023.7.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2017.4.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2013년 협상 중단 후 2022년 재개, 협상 중, 1차 TTC : 2023.5	EU-인도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발촉 (2023.2.6)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23.10.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완료, EU 집행위-뉴질랜드 정부 FTA 서명 완료 2023.07.09.	E유럽의회 승인(2023.11), 이사회 채택 및 뉴질랜드 비준 완료 후 협정 발효 예정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 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중, 직전협상: 2019. 4.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케냐	협상 완료 : 2023.6.19.	이사회 승인 이후 협정 발효 예정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4809900010,4811900010,4816900010,4823908520	감열지(특정 경량지)(Thermal paper (certain lightweight))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17.5.4 ~ 2028.6.30	○ 판정결과 : EURO103.16 / t * 2023.6.29 : 일몰재심 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2	4809900020,4811590020,4811900020	감열지(특정 중량지)(Thermal paper (certain heavyweight))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0.10.20 ~ 2025.10.21	○ 판정결과 : 15.8%
3	3906909017	고흡수성 수지(Super absorbent polymers)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2.4.6 ~ 2027.4.6	○ 판정결과 : 13.4 ~ 18.8%
4	28046900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반덤핑(규제중)	중국(한국, 대만)	○ 부과기간 : 2022.8.13 ~ 2027.8.13	○ 판정결과 : 16.8% * 중국산 우회수출 규제 * 2022.8.12 : 일몰재심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5	7225110011,7225110015,7225110019,7226110012,7226110014,7226110016,7226110092,7226110094,7226110096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규제중)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 부과기간 : 2022.1.18 ~ 2027.1.18	○ 판정결과 · 일본 : 35.9 ~ 39.0% · 중국 : 21.5 ~ 36.6% · 한국 : 22.5% · 러시아 : 21.6% · 미국 : 22% * 2022.1.14 : 일몰재심후 조치 연장 결정

6	7312108112,7312108113,7312108119,7312108312,7312108313,7312108319,7312108512,7312108513,7312108519,7312108912,7312108913,7312108919,7312109812,7312109813,7312109819	철강 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반덤핑(규제중)	한국, 중국, 모로코	○ 부과기간 : 2018.4.20 ~ 2023.4.21	○ 판정결과 · 중국 : 60.4% · 모로코 : 60.4% · 한국 : 60.4% * 일 몰재심중 (2023.4.14~)
---	--	---	----------	-------------	--------------------------------------	--

7	72,73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p>○ 판정결과 : TRQ방식, 초과 수량 25% 관세 부과, 연 3% 쿼터 증량 방식 *</p> <p>2021.6.25 : 조치 연장 결정</p> <p>1) 비 합금 및 기타 합금 플레이트(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 · 우크라이나/영국 외 전세계 : 575178,29(2023.7.1~2023.9.30), 575178,29(2023.10.1~2023.12.31), 568926,35(2024.1.1~2024.3.31), 568926,35(2024.4.1~2024.6.30)2) 철 또는 비합금 형강(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 Alloy Steel) · 우크라이나/영국 외 전세계 : 67361,21(2023.7.1~2023.9.30), 67361,21(2023.10.1~2023.12.31), 66629,03(2024.1.1~2024.3.31), 66629,03(2024.4.1~2024.6.30)3)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시트 및 스트립(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 Strips) · 한국 : 49549,16(2023.7.1~2023.9.30),</p> <p>○ 부과기간 : 2021.7.1 ~ 2024.6.30</p>
---	-------	----------------------	------------	-----	---

						9.30), 49549,16(20 23.10.1~202 3.12.31), 49010,58(20 24.1.1~2024. 3.31), 49549,16(20 24.4.1~2024. 6.30) · 대만 : 45948,59(20 23.7.1~2023. 9.30), 45948,59(20 23.10.1~202 3.12.31), 45449,15(20 24.1.1~2024. 3.31), 45449,15(20 24.4.1~2024. 6.30) · 인도 : 30710,50(20 23.7.1~2023. 9.30), 30710,50(20 23.10.1~202 3.12.31), 30376,69(20 24.1.1~2024. 3.31), 30376,69(20 24.4.1~2024. 6.30) · 미국 : 24986,11(20 23.7.1~2023. 9.30), 24986,11(20 23.10.1~202 3.12.31), 24714,52(20 24.1.1~2024. 3.31), 24714,52(20 24.4.1~2024. 6.30) · 7개국 외 전세계 : 52737,87(20 23.7.1~2023. 9.30), 52737,87(20 23.10.1~202 3.12.31), 52263,55(20 24.1.1~2024. 3.31), 52263,55(20 24.4.1~2024.
--	--	--	--	--	--	---

						24.4.1~2024.6.30)
8	7307931191,7307931193,7307931194,7307931195,7307931199,7307931991,7307931993,7307931994,7307931995,7307931999,7307998092,7307998093,7307998094,7307998095,7307998098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 부과기간 : 2019.4.9 ~ 2024.4.10	○ 판정결과 · 한국 : 32.4 ~ 44% · 러시아 : 23.8% · 말레이시아 : 49.9 ~ 75% * 2019.4.10 : 일몰재심 후 조치 연장 결정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행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된다.

○ 산림벌채관련 제품 수입금지 (2023년 6월 29일 발효,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EU는 산림벌채 관련 제품의 역내 소비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산림 벌채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산림벌채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규정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2023년 6월 29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소, 코코아, 커피, 팜오일, 고무, 콩, 목재 등의 원자재와 파생상품*을 역내 생산, 판매,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새로이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사 선언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시행 일정은 법안 발효 후 18개월 부터 중,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소규모 기업에는 보다 가벼운 실사무가 24개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 소, 코코아, 커피, 팜오일, 고무, 콩, 목재 등의 원자재와 파생상품 등 규제 세부품목별 HSCODE는 EU 관보 Annex1 참고
참고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115&qid=1687867231461>)

○ 대러제재 관련 러시아산 제품 수입금지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 통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의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러시아에서 생산 및 수출되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와 일부 철강품목 등으로 자세한 관련 제품 목록은 대러제재 관련 규정 (EU)2022/576의 Annex XXI, XXII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산 제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회방지조치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품목을 역내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러 제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참고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R0576>)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

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석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기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과불화합물 최대 허용 섭취량 수정 및 전면 금지조치(초안)

과불화합물(PFAS, Perfluoroalkyl substances)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고분자 화학물질로 세부 유형으로는 PFOS(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A(perfluorooctanoic acid), PFNA(perfluorononanoic acid) 및 PFHxS(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가 있다. 과불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화학 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늘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식품 포장재, 섬유의 방수코팅, 의료장비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하지만 독성이 있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체내에 축적되면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신장 기능 장애, 면역체계 약화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2022년 12월 EU는 기존의 과불화합물 규정 (EC) No 1881/20064 을 개정한 규정 (EU) 2022/2388 를 마련하고, 네 가지 유형의 과불화합물의 섭취를 주당 4.4ng/kg만 허용하는 “주간 섭취 한계량(TWI: Tolerable Weekly Intake)”을 설정했다. 이 과불화합물 규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1일 이후 출시된 식료품의 경우 과불화합물이 최대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 시장에 출시된 식료품은 사용 기한 날짜까지 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된다.

한편 EU는 현재 과불화합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EU비회원국 노르웨이 5개국은 2023년 2월 7일 과불화합물 사용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과불화합물 규제안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초안에는 현재 1만여 종이 넘는 과불화합물 제품의 대체 물질을 화학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18개월에서 최대 12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규제 초안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유럽화학물질청(ECHA) 위원회의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 영향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과학적 평가와 더불어 다른 EU 규제와의 충돌 여부 및 업계의 의견도 수렴도 진행된다. 해당 규제 법안의 시행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 될 전망이다.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증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 EU의 관세제도

EU 관세는 크게 최혜국 관세,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최혜국 관세 (MFN; most-favoured-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 협정 특혜관세: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된다.(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 GSP관세: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GSP 개정 동향

기존 EU의 GSP 규정은 2023년 말 만료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GSP 참

여국에 대한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를 비롯하여 EU의 이민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등의 조항을 두고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약이 지연되며 집행위는 2023년 7월 기준 GSP 규정을 2024~2027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며 GSP 개정이 지연되고, 현재의 GSP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될 예정이다.

○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와 HS CODE별 EU의 관세율은 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 EU 관세제도 개혁 동향

집행위는 2023년 5월 17일 관세제도 개혁안을 발표 했다. 이번에 발표될 개혁안은 2020년 9월부터 추진된 관세 동맹의 현대화 및 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기존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세 행정 시스템이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불법 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중한 세관 업무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변화 상황에 대응해 관할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안은 기존 세관 시스템의 정보 중앙집중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국가별 당국의 신속 대응 조치 강화, 세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EU는 기존 관세동맹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공유 강화, EU 역내 공통 조정기관 구성,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s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혁안은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기관 별 입장이 채택되면 3자합의를 통해 최종 입법이 완료 될 예정이다.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을 통해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참고 링크: IOSS 웹사이트 https://vat-one-stop-shop.ec.europa.eu/index_en)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연장

2022년 5월 25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적용 중단 조치를 채택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간 만료에 앞서 EU는 러-우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관세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 했다.

신규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할때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 일부 곡물 등 가장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EU-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 조치로 자국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는 2023년 9월 15일 관련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판매를 통제하는 대신 역내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운송 통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15일부로 구축하여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루마니아의 유일한 항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흑해의 콘스탄차 항구이다. 이 항구에서 철도와 도로를 통해 수도 부쿠레슈티와 동유럽측으로의 물량이 운송된다. 유일한 해상항구이자 모든 유형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주요 항구이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2년 기준 콘스탄차 항의 물동량은 7,550만 톤으로 전년도 6,748만 톤 대비 11.8% 증가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루마니아의 주요 국제공항은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Henri Coanda 국제 공항이다. 이 외에도 대도시 클루즈나포카의 Avram Iancu 공항, 티미소아라의 Traian Vuia 공항 등이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20년 기준 루마니아 항공화물 물동량은 50.5만 톤으로 2021년 대비 약 20% 증가,

3) 유의사항

루마니아 내 철도, 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콘스탄차 항구에서 기타 유럽국가로 운송되는 물동량이 제한적이다. 루마니아는 EU펀드를 통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철도, 도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위 조건이 개선될 경우 콘스탄차 항구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 신고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공통관세를 부과하며, EU 규제 등이 진행 중인 TARIC 코드 몇 품목에 대해선 특별관세가 적용된다. EU 내 모든 수출입을 위해선 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가 필수이다. 수입업자, 수출업자, 운송업자 등 수출입 업무에 관련된 모든 주체가 고유 EORI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모든 수출업자는 상품이 EU 영토에 진입하기 전 수출하고자 하는 회원국에 Entry Summary Declaration (EN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Union Customs Code (UCC)를 통해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EU 모든 세관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루마니아의 과세 및 통상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은 재정부 산하 National Agency for Fiscal Administration (ANAF) 과 그 부속기관들이다.

수입업자는 마찬가지로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AD)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루마니아 세관에 제출하게 된다. SAD가 루마니아의 표준 통관신고서 양식이며, 물품 이동의 전 과정을 기술하는 서류이다. 모든 물품은 EU 진입 시점부터 통관절차 종료까지 세관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며, 세관 담당자들이 상품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ENS를 통해 관리된다.

○ 루마니아 수입 시 인증 및 서류절차

수입품 운송에 필요한 서류는 상품의 성격, 발효 중인 양자 및 다자협약, 그리고 기타 수입국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입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관 출입 서류 (수입국 세관 양식): 수입업체 본인 혹은 수입 대행업체 작성
- 세관 채권 (Customs bond, 필요시): 특정 상품에 대해 요구되며, 수입국 자체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음.
- 의무이행 (Legal Undertaking, 필요시): 수입국에서 제공하는 혜택 수령 및 특정 제품 통관에 필요할 수 있음
- 세관신고서: 수입국이 특정한 양식의 통관신고서
- 수입자격증 (Import License, 필요시): 수입국에서 요구할 시
- 보험증서: 정부 공인업체에서 발급된 보험증서
-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필요시): 수입업체가 LC 혹은 구입주문에 첨부을 요구할 시, 국제공인기관 (SGS, BVQI 등)의

점검을 필한 후 받는 서류

- 아타카르네 / 임시통관증서 (필요시)
- 구입주문 / 신용장
- CI, PL (Commercial Invoice and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필요시):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으며, 동봉 시 수입국 세관 관계자의 제품식별에도 도움이 됨.
-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필요시): 상품의 이동이 상업목적이 아닐 경우, 상품에 동봉하여 배송
- 중량증명 (Weight Certificate, 필요시): 수출업체가 발행. 배송운임, 교통법규, 관세계산, 수출입 혜택 수령 등에 필요할 수 있음
- 영사 송장 (Consular Invoice, 필요시): 몇몇 국가는 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을 수출입 필수 서류로 취급함.

○ 기타 특정 제품군에 대해 요구될 수 있는 서류 목록

-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 성분증명서, Ingredients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 선적 전 검사증명서, 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
- 식물검역증명, Phytosanitary Certificate/quarantine certificate
- 방사능 수치 증명 Radiation Certificate
- 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 위생증명, Certificate of Health or Sanitation
- 원산지증명, Generic Certificate of Origin
- 위험물질증명, Dangerous Goods Certificate
- Fisheries Certificate
- 훈증 증명서, Fumigation Certificate
- 부두수취증 및 창고증권, Dock Receipt and Warehouse Receipt
- 목재 포장재 검역, ISPM 15 (Wood Packaging) Marking certificate
- 매뉴얼 및 카탈로그, Product manual or Product catalogue
- 엔지니어 검수 확인서, Certified Engineer's Report
- CEC, Chartered engineer's certificate
- 제품사양서 Product specification certificate
- 기타 필요 증명서

○ 은행 서류

- 환어음, Bill of Exchange
- 주문 및 신용장, Purchase order or Letter of Credit
- CI 및 PL, Commercial Invoice and 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 Certificate of Origin
- 보험증서, Insurance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Certificates of Inspection (필요시)
- 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필요시)

- 위생증명서, Certificate of Health or Sanitation (필요시)

- 기타 필요 서류

○ EU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2013년 1월 1일부터 루마니아 수입물품 통관 시 VAT(부가가치세) 선불 의무가 폐지되었다. 루마니아는 원칙적으로 EU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온 수입자는 통관 시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VAT 선불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지불 연장제도("Licence E.T.14.000"이라고 칭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Licence E.T.14.000"를 승인받은 업체라도 통관 때 수입 물품 가치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VAT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는 행정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완전한 부담 경감도 되지 않았다.

□ 규제 및 관세

○ 비관세장벽

현재 수입량 쿼터제 및 추가과세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의약품, 화학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 수입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상품은 보건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농산품의 경우 농업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수입관세 및 세금

EU 회원국 간 수출입에 대해선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EU 외 국가에 대해서도 루마니아의 관세율은 낮은 편이며, EU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 수입절차

루마니아가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관세는 사라지게 되었다. AEO 인증 보유 시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공식 세관신고서 양식은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AD이다. SAD는 상품의 이동을 기록한 서류이며 회원국과 EU 외 국가 간 거래에 필수이다. EU의 공식 통관절차는 모두 SAD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SAD는 이하 주체에 의해 작성된다.

- 상품을 EU 영토로 운반한 당사자, 혹은 상품의 이동을 책임진 대리인

- 혹은 상기한 대리인의 사용자

WCO가 제시한 SAFE 기준에 따라, EU 역시 Import Control System, ICS를 적용하여 EU의 관세영토에 진입한 상품들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

ICS는 EU가 추진 중인 eCustoms 프로그램 일부로서, 201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 주체들은 EU 수출 시 Entry Summary Declaration (EMS)를 작성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2008년 적용된 세관 현대화 정책에 의해, 통관절차가 전산화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로 EU 외 경제주체는 통관 시 EORI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아타카르네 (임시통관증서)

2004년 3월 8일부, 전시회 샘플 및 전문장비류에 대해 아타카르네(임시통관증서)를 허용하고 있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Company Name: LORDWAY LOGISTICS PTE. LTD.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세종로 대우복합빌딩 502호
전화번호	(02) 720- 5711(Rep.)
비고	팩스: (02) 720- 5712

○ Shenker Korea Ltd.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49 공항물류단지 G3블럭
전화번호	(032) 744- 0300
홈페이지	http://www.dbschenker.kr

○ Cargo-Partner Logistics(Korea) Co., Ltd.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4-11
전화번호	(02) 3141-3880
홈페이지	http://www.cargo-partner.com

○ Kuehne + Nagel Ltd. - National Head Office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 마포타워빌딩 9층
전화번호	(02) 2078-8700
홈페이지	http://www.kn-portal.com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 투자사항만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관련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와 관계되는 법률로서 807/2014 및 332/2014 2개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07/2014 법률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정 주 정부 보조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관한 정부 조례이며, 332/2014 법률은 직업창출을 위한 국가 보조계획에 관한 정부조례이다. 807/2014 및 332/2014의 주요 내용은 상기 투자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1백만 유로 이상 투자: 직접투자비 대비 50%(부카레스트 10~15%)를 현금으로 지원. 금속, 어업, 농업, 에너지, 음료, 관광업, 판매 등 일부 분야 제외. 제약 및 의료기기 생산, 병원 등은 가능
- 100인 이상 고용 투자: 총 인건비(세금 및 사회보장, 연금 등 포함)의 최대 50%(부카레스트 10~15%)를 2년간 지원.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3년간 의무고용 유지. 금속, 어업, 농업, 에너지, 음료, 관광업, 판매 등 일부 분야 제외. 제약 및 의료기기 생산, 병원 등은 가능

상기 2개 법률과 별도로 민간자본 도입을 통해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률로 178/2010을 제정하였으나 동 법에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233/2016으로 개정하였다.

233/2016 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PPP 사업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계약으로 또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동으로 설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해 추진될 수 있음(법 제 4조).
- PPP 사업 자금은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자금 조달은 직접적 자금조달, 지급 보증, 또는 민간 기업을 위한 몇 가지 권리 부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법 제10조 내지 제16조).
- PPP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부터 시작하여, 공공조달 관련법 절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 PPP 계약 체결 및 사업 시행 등의 절차로 진행됨(법 제17조 내지 제30조).
- PPP 계약은 추진될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에게 최선의 편의 조치들을 제공해야 함(법 제31조 내지 제43조).
- 공공기관은 “예외적인 사유”를 가진 몇 가지 특정 경우에 PPP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음. 그 “예외적인 사유”는 반드시 공공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공중보건, 환경보호, 품질수준 유지 등에 관한 것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계약 수정이 계약의 일반적 목적을 변경하는 수정이어서는 안 되며, 수정이나 종료 방침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함(법 제35조).

투자인센티브

루마니아정부의 투자인센티브는 투자금액과 신규 고용 기준으로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번째는 루마니아 경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이 최소 1백만 유로 이상일 경우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25 M 유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지역에따라 보조금의 한도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부카레스트 지역은 최대 7.5 M 유로이며 루마니아 서쪽과 일포브지역은 26.25 M 유로이며 다른지역들은 37.5 M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현금 보

조금은 새로운 건물 건설이나 구입, 현 건물 임차, 유무형 자산을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최소 10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4%는 장애인 채용)할 경우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0 M 유로 예산으로 지역별로 보조금 한도 차등이 있다. 이 현금 보조금은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급여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투자인센티브 외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이익을 기술장비, 소프트웨어 자산, 제품 라이선스 등 구입에 투자를 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
- R&D 지출에 대한 공제 확대 즉 추가 50%까지 세금 감면
- 처음 10년 동안 혁신 및 R&D 활동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 R&D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 IT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등

제한 및 금지(업종)

루마니아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루마니아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루마니아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에서 정부의 허가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로, 투자가 2002년 7월 1일까지 이루어졌고 투자가 가공 산업에 사용되며 감가상각이 되는 유형 자산으로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투자는 지분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분구조 변경이라 함은 지분의 25% 이상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유무역지대에서 활동하는 모든 다른 기업들은 이 지대에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5%의 세율만 적용을 받게 됐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표준 세율이 적용됐다.

비수혜지역 투자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전 비 수혜지역에서 투자 인증서를 취득한 법인은 비 수혜 지역 거주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게 된다. 산업단지에 업체가 위치하면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및 도로 등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므로 유리한 점이 많으나, 이처럼 유리한 조건 때문에 다른 유흥지나 농지보다 다소 가격이 비싼 점이 단점이다.

산업단지

◦ Cugir Industrial Park

규모	62,000 sqm
위치	8 A, Victoriei Street, Cugir, Alba, Romania
임차료	◦ 세부 임차료는 개별 문의로 파악 가능

관할기관 및 연락처	Tel/Fax: +40.258-750.626 Email: contact@parculindustrialcugir.ro Homepage: www.parculindustrialcugir.ro
비고	담당자 : Mr. Muntean Emil Nicolae, General Director 주요 품목 : 전자제품, 플라스틱 생산 등

◦ Metrom Industrial Park

규모	63,700 sqm; out of which 27,000 sqm built
위치	60, Carpatilor Street, Brasov, Romania
임차료	◦ 세부 임차료는 개별 문의로 파악 가능
관할기관 및 연락처	e-mail: office@mipbrasov.ro Tel: +40 368 101 012 Fax: +40 368 101 013 homepage : www.mipbrasov.ro
비고	담당자 : Mr. Silviu Stefan Harcovescu, Director 품목 : 철강제품, 소프트웨어, 통신제품 등

◦ Bucharest Industrial Park

규모	143,000 sqm
위치	Bulevardul Nicolae Balcescu nr. 35, ap.10, et.5, sector1, cod010045, Bucuresti
임차료	◦ 세부 임차료는 개별 문의로 파악 가능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40-21-313 44 45 / 팩스: 40-21-313 44 46 ◦ 이메일: lhagea@universalproperty.ro ◦ 홈페이지: www.bucharestindustrialpark.com
비고	◦ 담당자: Mr. Liviu Hagea, Administrator ◦ 주요품목 : 패키징(판지 제조), 화학, 제약 품목 등

◦ North Giurgiu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규모	120,000 sqm out of which 90,000 sqm built
위치	Soseaua Bucuresti nr.352, Giurgiu, Jud. Giurgiu
임차료	◦ 세부 임차료는 개별 문의로 파악 가능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40-346 540 040, +40-346-540 041 ◦ 팩스: +40-246-210 282; 210 283 ◦ 이메일: raluca56@yahoo.com; giurgiu_indpark@mail.com ◦ 홈페이지 : http://giurgiu-indpark.ro/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 Mr. Nicolae Jianu, Director○ 주요 품목: 화학, 섬유, 건설자재, 서비스, 영양, 자동차
-----------	--

<자료원 : 해당 산업단지 홈페이지 >

주요 지역별 여건

○ 부쿠레슈티(Bucuresti)

- 면적: 228km²
- 인구: 171만 명(2022년 기준)
- 주요 산업: 자동차(다치아), 소프트웨어 등
- 비고: 부쿠레슈티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되고 산업화된 도시로 GDP의 약 21%, 산업 생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루마니아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 클루지-나포카(Cluj-Napoca)

- 면적: 180km²
- 인구: 30만 명
- 주요 산업: 연료, 항공기 부품
- 비고: 루마니아 제 2의 도시. 독일인과 헝가리 민족 비율이 높으며 북서쪽 도시 중 가장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2021년 루마니아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89억 5천만 유로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하며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경제 상황에 적응하며 2020년 초 중단된 투자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루마니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국가는 네덜란드(22.1%), 독일(12.5%), 오스트리아(12.2%), 이탈리아(7.5%), 프랑스(6.5%)이며, 최종 투자국(Ultimate Investing country) 기준으로는 독일(14.9%), 오스트리아(10.7%), 프랑스(9.7%), 이탈리아(7.9%)가 뒤를 이었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6218.91	5791.04	3432.3	8610.35	-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2021년 말 기준 루마니아의 해외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Abroad, DIA) 규모는 27억 9,300만 유로였다. 주요 투자국은 키프로스(5억 2,600만 유로), 그 뒤를 이어 몰도바 공화국(3억 3,300만 유로), 이탈리아(3억 200만 유로), 헝가리(2억 8,400만 유로), 불가리아(1억 7,700만 유로)였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379.09	362.71	52.54	-30.75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현재 루마니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5개사가 있으며, 누적 투자는 11.3억 불 규모이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1	0	5,000	1	5,000
2022	11	2	8,709	9	6,915
2023	5	0	6,547	6	8,06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한국의 루마니아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루마니아 내 생산 이후 서유럽으로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 및 서비스 등 분야의 투자는 매우 제한적 편이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5,000	1	5,0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1	8,517	3	6,742
도매 및 소매업	8	1	192	6	17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	0	6,481	3	8,002
도매 및 소매업	3	0	66	3	6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삼성오텔리녹스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스테인레스판
모기업명	삼성물산

○ 지엠비루마니아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지엠비코리아

○ 다이내믹 디자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금형제작
모기업명	세화아이엠씨

○ 루마골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엔진부속품, 자동차시트, 에어백
모기업명	글로벌SM

○ 효성 GST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에어백 원단
모기업명	(주)효성

○ 캄텍주식회사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캄텍주식회사

○ (주)뉴인텍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콘덴서 (AC용 콘덴서, 고화질 TV용 초고압플라스틱 콘덴서), 금속증착필름, 통신부품류
모기업명	(주)뉴인텍

○ 신홍정밀(주)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주형 및 금형
모기업명	신홍정밀㈜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이나 지사는 루마니아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나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대표자는 법인일 경우 자체 내에서 임명 가능하나, 지사인 경우 본사로부터 임명장 제출이 요구된다. 법인은 제조 및 생산, 유통까지 담당 가능하나 지사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현지 딜러 관리 차원에서 본사와 현지 딜러 간의 긴밀한 관계성과 시장조사를 주 목적으로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지법인과 외국법인 지점과의 차이점은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에서만 지게 되지만 지점의 경우는 한국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있다. 금융 문제에 있어서, 현지법인의 경우 루마니아 내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에 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지법인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점의 경우는 이익은 본사에 귀속되고 현지법인의 자회사인 경우는 현지법인에 귀속된다.

□ 루마니아 법인 설립과정

○ 조건

루마니아의 가장 흔한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 (LLC, 루마니아어 societatea cu raspundere limitat, SRL)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최소 200레이 (약 40 유로)이어야 하며, 1개 주의 액면가는 최소 10레이 (약 2유로)이어야 한다. 주주의 수는 최소 1명~최대 50명이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 주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한번에 두개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단독주주가 될 수는 없다. 만약 한 법률주체가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한 개 주는 다른 주체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단독주주 소유의 유한책임회사는 다른 단독주주 소유의 유한회사를 가질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영은 한명 이상의 이사진이 맡게 되며, 경우에 따라 무한책임을 질수도, 유한책임을 질수도 있고, 내/외국인 모두 이사진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인, 내국인 투자 법인에 대해서는 따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두번째로 흔한 법인형태는 합작투자회사 (Joint-Stock Company, 루마니아어 societatea pe aciuni, SA)이다.

합작투자회사의 법정자본금은 최소 90,000레이 (약 19,000 유로)이다. 주주는 법인/자연인 여부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정해진 최대인원수는 없음), 주식의 매매는 공개/비공개 모두로 진행할 수 있다. 주당 액면가는 최소 0.1 레이 (약 0.02유로)이다. 최근 개정안에 따라, 주주는 경영진이 보유주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경영진의 보유지분은 50%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유형 법인의 경영은 단일경영, 혹은 이중경영 체제를 가진다.

단일경영제에서 회사의 경영은 홀수 이사진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맡게 된다. 이사회는 한명 이상의 경영인을 지정하여 회사의 경영을 맡리게 되는데, 재무제표가 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 최소 3명의 경영인을 지목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중경영 (two-tier)체제에선 회사의 경영이 executive board와 supervisory board에 의해 이루어진다. Executive board는 경영실무를 담당하며 supervisory board에 보고를 올리고, executive board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가진 supervisory board는 주주총회에 보고

하는 구조이다. Executive board 및 supervisory board의 임원들은 회사와 통상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며, 대신 경영계약을 맺는다.

○ 절차

- National Trade Register에 법인 등기
- 서명견본 - 이사진이 될 예정인 사람의 서명
-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 및 부속정관 작성
- 자본출자 - 법인 형태에 따라 상이
- 법인계좌 설립
- 등록절차를 위한 사무실 개설
- Trade Register에 법인서류를 제출하고, 투자자 대표를 Trade Register judge에게 소개

지사

지사는 외국인 법인체로서 지사가 속한 본사 소재 국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사도 루마니아 회계법에 의해 회계사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현지법인 자회사처럼 지사 자체의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할 의무가 없는 대신 본사의 연차 회계보고서가 루마니아 공식 언어(루마니아어)로 발표되어야 하며, 1부는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사의 연차 회계 보고서는 해당국 회계법에 의해 감사, 공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사의 단점은 본사의 회계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 루마니아 지사 설립과정

○ 조건

해외지사의 설립은 사업확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루마니아 지사는 단독 법인격을 갖지 못하며, 단지 모회사의 일부로 취급될 뿐이다. 법령 105/1992호는 루마니아 지사의 활동을 모회사의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사는 모회사의 해외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사와 자회사의 차이점은 이하와 같다.

-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못하며, 모회사의 자산 외 별도의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반면 자회사는 단독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지사의 자산은 모두 모회사의 것으로 간주한다.
- 지사는 지사 명의 혹은 모회사 명의로 제삼자와 계약관계에 서명할 수 있지만, 책임주체는 항상 모회사이다.
- 지사는 루마니아 내에서 채무관계를 가질 수 없다.

○ 절차

지사의 등록절차는 자회사의 등록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Trade Registry에 등기절차를 거치고, 투자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루마니아 지사의 대표로 선임해야 한다. 그 외에는 모회사의 설립정관 및 재정증빙서류, 그리고 지사의 설립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

○ 주의사항

지사 설립 절차와 자회사 설립 절차가 상이함에 유의해야 한다. 지사 설립 시 루마니아 현지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지원받는 것을 권고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산업 동향 등 각종 시장 조사 및 기업들과의 접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설치절차는 없고, 관련 구비서류를 기업창구에 제출한 후 기업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 루마니아 연락사무소 개설과정

○ 조건

해외법인의 루마니아 사무소 개설 근거법은 122/1990이다. 사무소의 단독적인 상거래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홍보 및 모회사의 해외거래 관리는 허용된다.

사무소와 모회사의 상호존적인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 사무소는 해외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현지 화폐로는 어떤 수익도 창출할 수 없다. 또한 사무소는 현지 화폐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해당 계좌로의 자금 공급은 해외 통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무소의 설립을 위해선 루마니아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그리고 대외무역부 (Department of Foreign Trade)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득한 라이선스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사무소의 설립시점이 당해 1분기가 아닐 경우, 연 수수료는 설립시점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또한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의 해외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대표하는 법인당 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 절차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모회사의 법인격, 활동내역, 자본을 증빙하는 서류
- 모회사의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건전 은행의 증빙서류
- 기업 실체를 특정하는 법인의 공인서류
- 사무소를 대표할 변호사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모회사의 서류 (공증필요)

상기된 서류와 공증된 번역본, 그리고 사무소가 위치할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무소 운영 수수료 (business operating fee)를 지불했다는 증서를 ANAF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절차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운영허가가 발급된다.

대부분의 사무소는 과세부담이 적은 편인데, 사무소는 단독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모회사의 지원금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2020년 유럽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투자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입법 불안정, 예측불허의 의사결정, 부패 등의 요인이 투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적절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 된 법안채택과 그에 대한 평가부족 그리고 공공기관의 빈번한 재편성 또한 루마니아 투자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처럼 루마니아의 투자환경은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잠재적인 투자자는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실사를 수행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민간 기업의 단독 투자나 합작 투자의 경우 루마니아 내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상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루마니아 법률 및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루마니아 공공기관 관련 투자는 민간 기업의 단독투자 혹은 합작 투자보다 더욱 복잡한 면이 있다.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정부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는 정치 기득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방해받거나 정부 부처 간의 권한 분배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p> <p>3) 분쟁해결 루마니아는 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를 설립하고 다양한 합병 및 인수건에 대해 검토를 받도록 하고있다. 이 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의 인수나 합병의 경우 또한 루마니아 최고 국방위원회에 통보될 수 있으며 국방부에서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루마니아 자본 계정은 2006년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외국기업은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루마니아 혹은 외국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 합작투자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투자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 합작투자를 선택하는 편이다. 합작투자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기업경영 분담을 통해 기술 및 자본들을 상대방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같이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적인 해외 투자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합작투자는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 무형자산, 경영 및 기술 노하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전에는 단독투자방식이 많이 이용돼 왔다면, 최근에는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의 사전 투자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며, 국내 투자자와 합작을 통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의 신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루마니아에 설립된 기존의 외국 투자기업은 또 다른 외국 투자자와 협력해, 새로운 100% 외국자본투자에 따른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합작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투자 파트너 기업 선정이 중요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지 시장을 잘 알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것처럼 합작투자의 장점으로는 파트너와 투자자금 및 위험부담에 대한 분담과 투자 파트너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반면, 합작 파트너와 경영방법 및 전략 등에 관해 의견 차이가 커질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어렵고, 기술이전으로 인해 향후 경쟁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주식회사의 설립요건

- 최소 1명 이상 50명 이내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200레이, 약 60달러). 상장기업은 최소 2명 이상 상장기업 자본금은 9만 레이 (28,200달러) 이상

○ 유의사항

- 주식은 10레이 이하로 분할될 수 없으며, 1인이 전체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상장기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주주 등록이 필요하다.

유한책임회사

투자규모가 작을 경우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주식회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관리인이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형태가 선호된다. 상장주식회사는 투자금액이 큰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나 정부의 투자금액 조사 등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진출 시에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루마니아 유한책임회사는 주주들의 책임을 제한한다. 오직 한 명의 주주만이 필요하고 최소 45유로의 자본금만이 형성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를 지배하는 루마니아 법은 외국인 총소유권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법률상 루마니아 투자자들과 똑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을 구성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루마니아 유한책임회사(LLC)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완전 외국인 소유: 외국인들은 전체 LLC를 소유할 수 있다.
- 유한책임: 주주들의 부채는 그들의 가입된 자본 출자금으로 제한된다.
- 빠른 승인: LLC는 3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1명의 주주: 최소 1명의 주주로 LLC를 형성할 수 있다.
- 1명의 이사: LLC는 원한다면 단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감독을 가질 수 있다.
- 프라이버시: 주주들의 이름은 어떠한 공개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 EU멤버십: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이다.

개인사업자

○ 단독투자

단독투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루마니아 내 법인 또는 지점 등을 설립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단독투자에 사전 투자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독투자의 경우 기업 단독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관계로, 의사결정 및 경영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다는 점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루마니아 신규 시장개척에 따른 리스크 및 단독투자로 인한 높은 비용 등을 단점으로 볼 수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NOERR Finance & Tac SRL

전화번호	+40-21-3125888
주소	Str. General Constantin Budisteanu nr.28C, sector 1, 010775 Bucharest
홈페이지	https://www.noerr.com/en/international/bucharest
이메일	scott.choi@noer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비고	법무법인

◦ VOLCU FILIPESCU

전화번호	+40-21-3140200
주소	94 Bilciurest STR 7th FL, 014012 Bucharest
홈페이지	http://www.vf.ro
이메일	raluca.mihai@vf.ro
비고	법무법인

◦ Tuca Zbarcea & Asociatii

전화번호	+40-21-204 8890
주소	Victoriei Square 4-8 Nicolae Titulescu Ave. America House, West Wing, 8th Floor, District 1, 011141 Bucharest
홈페이지	http://www.tuca.ro
이메일	office@tuca.ro
비고	법무법인

◦ British American Shared Services

전화번호	+40-37-210 4500
주소	319, Splaiul Independentei, 6 District, 060044 Bucharest
홈페이지	http://www.zf.ro
이메일	info@cmscmck.com
비고	회계법인

◦ Ernst&Young SRL

전화번호	+40-21-402 4000
주소	15-17 Ion Mihalache Blvd, 1 district, Tower Center, 011171 Bucharest
홈페이지	http://www.ey.com
이메일	office@ro.ey.com
비고	회계법인

◦ Deloitte Audit SRL

전화번호	+40-212 22 16 61
주소	4-8, Nicolae Titulescu, Bucharest
홈페이지	http://www.deloitte.ro
이메일	romania@deloittece.com
비고	회계법인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루마니아 외환관리법은 2005년 4월 EU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EU 외환 관리법에 맞추어 시행 중이다. 1998년 3월 IMF 8조국 가입에 따라 경상 거래 시 환전과 투자 수익의 송금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현금 지출 시 외화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외환 규제

경상 거래가 아닐 경우,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금 증빙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3개월 이내 입국한 외국인은 1만 유로 한도 내에서는 외국으로 송금 가능하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루마니아 입국 시 1만 유로 이상 소지에는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1만 유로 이상은 증빙서가 필요하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4.6885레이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8
비고	2023년 법정최저임금은 3,000 RON (약 639 USD)으로 전년 대비 약 17.6% 상승하였다. 2020년 1월부터 정부명령 No. 935/2019에 따라 고용주는 업무와 관련된 풀타임 근로자들에게는 적법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료원 : 루마니아 내무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일반적으로 루마니아의 고용은 양측에 사전 통보 기간이 주어진 무기한(indefinite term) 개별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은 주로 업무, 근무시간, 필요 시 초과근무, 복지, 휴가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개런티와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는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한다. 여타 포함되는 조항들은 직업교육, 직업이동, 기밀사항과 경쟁금지조항 등이 있다. 다른 계약 형태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fixed term), 임시직 중개소를 통한 계약 (temporary job placement agency), 시간제 고용계약(part time) 및 재택근무(work-at-home) 계약 등이 있다. 단, 이 계약들은 개정노동법상 허용된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근로시간

근무시간, 최저임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그리고 육아휴일 등 근로자의 권리는 루마니아의 유관 법규로 정해진다. 통상 법정근무시간은 1일 8시간/주일 40시간이며 총 15일의 법정공휴일이 있다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등 재량휴업 또한 가능하다).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1월 1일, 2일 (신정)
- 1월 24일 (통일기념일)
- Good Friday (부활절 전 금요일, 정교회 휴일)
- Easter Monday (부활 주일 다음날 월요일, 정교회 휴일)
- 5월 1일 (노동절)
- 성령강림절 다음 월요일 (일반적으로 정교회 부활절 7주 뒤)
- 6월 1일 (어린이날)
- 8월 15일 (Saint Mary's Day)
- 11월 30일 (Saint Andrew)
- 12월 1일 (국경일)
- 12월 25일, 26일 (크리스마스)

휴가

만 18세를 넘는 전임근로자에게는 연간 최소 2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개별고용계약 내용 또는 노사협약, 내규 등으로 더 많은 휴가 일수가 주어질 수 있다.

해고

루마니아 노동법에 의거, 고용계약의 종료는 법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법에서 특정한 경우, 당사자의 계약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예시: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직무 전문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영업일 기준 최소 20일 이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개별고용계약 및 노사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더불어, 직무성과에 관련 없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방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노동 법규는 개인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해고된 종업원이 규정된 조건에 따른 중복 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일부는 실제로 특정 산업(특히 정부 소유 사업체)에 적용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더는 적용 가능한 집단 합의에 의해 시행되지 않는다.

노동법규는 중복보상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상금 지급은 현재 단체협약에서만 제공된다.

루마니아인 고용 관련

2023년 법정최저임금은 3,000 RON (약 639 USD)으로 전년 대비 약 17.6% 상승하였다.

2020년 1월부터 정부명령 No. 935/2019에 따라 고용주는 업무와 관련된 풀타임 근로자들에게는 적법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사회건강보험의 수혜자는 루마니아 시민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에 임시거주권자이나 영주권을 가진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된다. 자신이 기여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사회건강보험기금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건강보험은 2018년 1월 1일부로 근로자가 소득대비 10%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2017년 11월 루마니아 정부가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효하기 전에는 고용주가 5.2%, 근로자가 5.5%를 부담한 바 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2018년 1월 이전에는 고용주가 0.5%, 근로자가 0.5%로 총 1%를 적립하였으나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고용보험을 산재보험 등과 통합하여 노동보험으로 통칭하고 고용주만 2.25% 부담하도록 세제가 개정되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2018년 1월 이전에는 고용주가 0.85% 부담하였으나 2018년 1월 세계개정 긴급명령 발효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화재보험, 연금보장기금 등과 통합하여 노동보험으로 통칭하고 고용주만 2.25% 부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18년 1월 세제 개정 긴급명령 발효에 따라 부담률이 고용주에서 근로자에게로 크게 전가되었다. 과거에는 고용주가 15.8%, 근로자 10.5%의 총 26.3%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고용주 부담분이 삭제되었고 근로자만 25% (노동조건에 따라 4% 또는 8% 가산)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국민보험을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실수령액 급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경향이 2018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표준 법인세율은 16%이다. 기업의 과세소득은 적용 가능한 회계규정에 따라 등록된 수익과 비용의 차이로 계산되며, 비과세소득 및 세금 공제를 차감하여 조정한다.

또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 및 비용과 유사한 요소를 고려한다. 영구기관을 통해 루마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거주 기업은 영구기득권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급여 소득에 관한 개인 소득세는 재정 법규(227/2015)에 따라 규제되었다. 갱신된 소득세는 2017년 16%에 비해 10%로 줄었다. 또한, 2017년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공동 책임과 비교해 사회보장세 대부분을 현재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국민 모두에게 10%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단, 건설, 농업 및 식품업 등 일부 특정 산업 종사자는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정부의 재정 조치로 인해 10,000 레이(약 2,013 유로) 이하의 급여를 받는 IT 산업 종사자는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루마니아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이다. 식품 및 음료 산업, 의료 및 보철, 숙박 등에 9%의 감소율이 적용된다. 특정 조건에서 사회 주택 공급에 5%의 추가 감소율이 적용되며, 숙박,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 놀이 공원 및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특별소비세

- 통합 과세대상은 이하와 같음
 - 주류
 - 가공 담배류
 - 에너지상품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및 전기)

과세 대상이 되는 시점은 EU 내 생산 시점/ EU 영토 외 반출 시점/ EU 영토 내 수입 시점이며, 실제 과세(chargeability)는 소비자 유통을 위해 물품을 반출할 시 발생한다.

해당 품목 제조사는 보세 창고 인가(tax warehouse authorization)를 받은 설비에서만 제조할 수 있으며, 보세 창고에서의 소매행위는 제한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외).

에너지상품, 가공담배류, 주류에 대한 보세창고의 설립이 가능하다.

유통업자는 보세창고가 없을 경우 유통 전 별도의 유통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기된 과세품목 외에도, 루마니아 내에선 전자담배 액상, 궤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대해 별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는 물품 반출 후 가장 가까운 25일에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경유, 휘발유, 등유, 액화 석유 등 에너지 상품은 유통

예정인 분량에 대해 사전 납세하고 소비세 영수증 등 납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유통할 수 있다. (공급사, 혹은 유통사가 공급사를 대행하여 제출 가능).

상기 품목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소비세가 면제되는데, 에너지상품이 광물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열병합 발전에 사용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루마니아의 담배 특별소비세

- 2023년 1월 1일 부로, 담배 특별소비세가 총 1,000개비당 594.97 레이(약 120 유로)로 인상되었음

건물세

지방의회는 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정했다.

-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물세액의 0.08~0.2%
- 비주거용 건물의 0.2~1.3% 세액

토지세

- 토지 소유주는 토지세를 부과받는다. 지방의회는 땅이 위치한 지역의 순위와 토지 이용 범주에 따라 평방미터 당 고정된 양을 정한다.
- 토지세는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매년 2회 균등하게 납부된다.
- 토지세는 전 과세연도 12월 31일 자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 과세연도 전체에 납부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루마니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모두 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별개의 법 규정이 있으며, 법 제도로써, 영업비밀은 주로 불공정경쟁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조성을 충족하여야 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고,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하다.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완화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6년간 보호되고 총 2회에 걸쳐 2년씩 연장 가능하다(최장 10년의 보호기간).

디자인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씩 총 3회에 걸쳐 최장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루마니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루마니아는 유럽 특허 협약(EPC)의 회원국이지만, 아직 유럽 단일 특허 회원국은 아니므로, 루마니아에서 특허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루마니아에서 법인의 청산은 법인 소멸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청산의 목적은 1) 해체된 법인의 자산을 식별하고 현금화하는 것, 2) 부채를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 3) 그리고 현금화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법인 청산 절차는 통상적으로 법인 해체로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청산 사유는 곧 법인의 해체 사유와 같다. 법인의 대표적 해체 사유는 이하와 같다.

- 법인의 목적달성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 사회적으로 법인이 무효가 된 경우
- 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따른 법적 분쟁의 결과로, 해당 법인이 사회 기능을 저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 회사가 도산한 경우
- 기타 법적 사유 및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청산을 진행중인 법인은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 본 법인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산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청산인의 선임이다. 청산인은 법인해체 후 30일 이내 선임되어야 하며, 법원이 직접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청산인 선임 절차에 개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법인과 자연인 모두 청산인이 될 수 있으며,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청산인은 주로 대표자가 맡아 책임을 지게 된다. 선임된 시점부터 청산인의 의무는 경영진과 함께 재고 및 대차대조표를 점검하고, 자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자산, 자산의 이해관계가 기록된 서류, 그리고 법인활동이 기록된 서류를 관리하는 것 역시 청산인의 의무이다.

청산인은 검열관의 관리하에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합자회사 (joint stock)처럼 이중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의 경우, 청산인은 감사회 (supervisory board, 주로 이사를 임명하는 상위 경영기관이며 audit과는 다름)의 감독하에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청산인의 주요 특성은 루마니아 법규 31/199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이 해체 후 청산절차를 밟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이나, 루마니아 법규 31/1990호에서는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내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인이 해체된 경우, 과반수 동의로 법인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도 청산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법인은 청산절차 중에도 법인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청산절차에서 필요한 만큼의 법인격만이 인정된다. 회사법 31/1990에 의거, 법인격은 청산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청산은 해체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나, 상황에 따라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청산완료 후 15일 이내 청산인은 Trade Register에 법인등기 폐지를 요청한다. 만약 청산기간 1년, 법원이 허가하는 최대 3개월의 연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인등기 폐지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Trade Register는 자동으로 해당 법인 등기를 폐지하게 된다.

Law: <http://www.cdep.ro/legislatie/eng/vol32eng.pdf>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루마니아의 인구는 2,000만 명이 넘는 상당한 시장 규모로, 유럽연합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이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기반과 잠재적 시장을 제공한다.

2007년 EU가입 이후, EU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루마니아 내 기업은 더 큰 기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루마니아 수출은 현재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서유럽 공급망에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루마니아는 다른 EU국가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저렴하여 비용 이점을 추구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시간당 평균 인건비(9.5유로)는 불가리아(8.2유로)에 이어 EU에서 낮은 인건비 2위를 차지했다.

*(참고) EU 평균: 30.5 유로, 폴란드: 12.5 유로, 체코: 16.4 유로 헝가리: 10.7유로 슬로바키아 : 15.6유로

對루마니아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 107억 유로로 전년 80억 유로 대비 33.75% 증가하였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3년 기준 루마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약 2,192만 명으로 동유럽 내 폴란드에 이어 2위 규모이다.

EU 내 타 국가 대비 높은 인구 수에 따라 다양한 소비 잠재력이 있다. 루마니아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인구 차이는 적은 편으로, 전체 인구의 52.2%가 도시에, 47.6%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자료원 : 루마니아 통계청>

소비 성향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루마니아 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확연한 차이가 없는 이상 소비패턴을 바꾸려 하지 않으므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19%), 고 마진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 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루마니아의 소비문화상 신중하게 구입한 뒤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구매하는 것을 싫어하며,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입증된 브랜드를 선호한다.

IRES(루마니아 전략평가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루마니아인들은 거주안정, 건강 관련 제품 구매, 실업으로 인한 재정

보호 등에 관심이 높아졌다. 전반적인 지출을 줄이고 차량구매나 해외여행 등에 대한 지출을 연기하였다. 의사방문, 약국방문, 식료품구매, 은행방문 등이 외출의 주요 이유가 되었고 반면 스포츠 활동, 가족방문 등이 빈도는 감소하였다. 전통적 구매 행태에서 온라인 쇼핑 및 카드사용 확대 등 현대적 구매행태로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75%의 응답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수입물품보다 자국산 제품 구매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의 주요 소비자 트렌드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의 증가이다.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LCD/플라스마 TV 시장에서 연이은 판매 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최근들어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식품, 화장품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루마니아 바이어들이 서유럽 바이어들을 통한 간접수입에서 탈피하여 한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상품은 품질이 좋고 글로벌 브랜드들 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루마니아는 물리적 거리상 상품이동에 대한 시간,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싼 제품을 찾는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쉽지는 않다. 대부분 EU 역내, 중국, 터키 등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구 주요국들이 한국의 대처능력을 집중 조명함에 따라 루마니아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더 긍정적으로 각인되었다. 한국산 진단키트 및 의료기기 제품들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는 등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업 진출 시,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유통망 공급을 우선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중국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라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부분을 강조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가 선호 경향이 강해 중국산과의 단순 비교 시,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므로 제품의 사양, 성능, A/S 등 중국산과의 우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금융 부문의 취약성 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파악이 필요하다. Unicredit Bulbank, Raiffeisen bank, First Investment Bank, Post bank 등 비교적 건실한 은행과의 거래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원자재 수출 또는 대형 설비 수출의 경우 바이어에 대한 사전 신용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어의 신용도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보험 상품 가입 시 혹시 모를 바이어의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3) 현지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유럽에서 통용되는 품질 인증(규격 인증 포함), 즉 CE 마크의 획득은 필수이다. 루마니아 수입업체들은 소량 수입·판매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업체가 요구하는 최소주문량(MOQ)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규모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해 최소주문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식 오더 이전에 샘플 공급 및 판매를 통해 바이어의 역량을 평가하고 사전 시장조사를 진행한 다음,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오더 물량의 수준을 가능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4) 결제조건 제시

우리나라 업체는 대부분 T/T in advance 조건이나 L/C(신용장) at sight(일람불)를 요구하고 있으나, L/C 개설에 따른 서류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개설에 따른 은행 수수료가 발생해 현지 업체들이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T/T 결제를 선호하며, 현지 관행상 선금 30%, 선적 후(선적서류 사본 송부 후) 70%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품에 따라 50% 대 50% 또는 30% 대 60% 그리고 나머지 잔금 10%를 물건 검수 확인 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전 송금 및 잔액 도착 시 지불 등 결제조건에 대해 보다 신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5) 무역사기 유의

최근들어 한국업체들이 루마니아 업체의 공급 거래조건에 속아 선금을 일부 보내는 무역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루마니아업체에서 유리한 공급 거래 조건과 자기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한다. 루마니아업체로부터 의심적인 거래 조건이 제시될 경우 반드시 무역관에 루마니아 업체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거래에 임해야 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루마니아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전화로 구두 약속을 한 후, 가능하면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1~2주 전 미리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정부 기관과의 면담일 경우 1~2개월 전에 미리 면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약속시간에 철저한 편이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일 경우 15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루마니아인 타임으로 생각하고 한국 측에서도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2) 인사

루마니아 사람과 비즈니스 만남 시에는 악수하는 것이 정석이며, 평소에는 여성과 인사 시 볼키스를 하고 안면이 있는 남성끼리는 악수나 반 포옹을 한다. 또한, 처음 본 사람을 낯설어하는 경우가 없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금세 친근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루마니아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과 낯을 가리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서로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어야 하고, 회의가 끝날 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한다.

3) 선물

루마니아 비즈니스의 원칙부터 말하자면 첫 만남에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것은 아주 좋다. 일반적으로 점심은 예의를 의미하고, 저녁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물은 이러한 절차가 지난 후에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사 로고가 찍힌 선물은 비즈니스 상담 기념으로 적절하다. 최근에는 루마니아 기업들도 미리 회사 로고를 찍은 선물을 준비해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회사 기념품 외에 선물을 주고 싶다면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텅없이 비싼 선물은 오해를 사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

4) 복장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나 가족기업의 기업인들은 비교적 느슨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한 복장을 선호하나, 비즈니스맨은 대부분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쓴다. 보통의 루마니아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캐주얼한 차림을 즐기는 편이다. 공식 석상이 아니면 정장을 입지 않는 편이다. 청바지는 캐주얼 차림뿐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 복장으로도 종종 사용되는데, 상의는 반드시 정장을 입을 필요가 있다.

5) 식사

루마니아 사람들은 저녁식사 시간이 빠르지 않은 편이다. 19시나 20시 이후에 저녁 식사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루마니아 사람을 저녁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초대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식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루마니아 식당 메뉴에는 채식주의 음식이 있어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식사 중에는 입에 음식을 가득 담은 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다. 특히 국수 등을 먹을 때 '후루룩'하며 소리를 내며 먹지 말아야 하고, 포크로 감아 나이프로 한입 크기로 적당히 잘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후에 입을 벌리고 이를 쐬이거나, 큰 소리로 트림을 하는 것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다. 저녁 시간의 경우, 맥주와 와인을 식사에 곁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가볍게 2~3잔 마

신다. 쭈이꺼(Tuica) 또는 빨린꺼(Palinca)는 과일로 만든 술(약 40도가량의 술)은 한입에 마실 수 있는 술로 루마니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전통주이다. 술을 시켜놓고 한두 시간 대화를 즐기는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한국식 폭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며, 한국식으로 원샷을 하거나 술을 강권하는 문화는 처음 몇 잔은 이색체험으로 재미있어하거나 따라 하지만, 그 이상 계속되면 곤혹스러워 할 수 있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EMAG

사이트 주소	www.emag.ro
개요	eMAG은 Dante International이 소유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현재 루마니아 최대 규모 플랫폼이다. 온라인 매장과 함께 수도 부쿠레슈티 및 주요 대도시에 10개의 쇼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22,800개의 상점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일일 약 50만명 정도의 고객이 위 사이트를 이용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 : 2002 매출규모 : 16억 달러 (2021) 고용인원 : 3,667명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가전제품, 화장품, 패션 제품, 가구, 책 등 생활소비재 전반
특징	eMAG Genius 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100RON(22 USD)이상 주문 시 특정 제품에 대한 무료 배송, 환송 정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다양한 할인행사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전국민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자동차 부품 G사

G사는 GM 등에 OEM 부품을 공급하고 미국, 중국, 태국 지역에 해외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유럽 완성차와의 거래관계 구축을 모색하던 중에 2013년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에서 주관한 Renault Automotive Plaza 행사 참가를 통해 1,4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듬해에 법인 및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됐다. G사는 루마니아 현지 생산공장을 통해 유럽 완성차 업계에 적기 납품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현지 마케팅 및 A/S 업무도 적극 진행하고 있어 대루마니아 수출로만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 화장품 B사

루마니아 I사는 루마니아의 가장 큰 약국 체인 중 하나인 Farmacia Tei 에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현지기업이다. 이 회사는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7days mask라는 제품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 현재 루마니아에서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판매가 증가 추세이다. I사는 다른 EU국가에서 판매되는 한국 B사 제품인 A 브랜드 제품을 보고 그 제품을 루마니아에 수입할 것을 한국업체와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당 관의 온라인 지사화 지원과 함께 화상상담을 포함한 몇 달의 논의 후 1백만 불의 온라인 MOU를 체결하고 5만 불의 초도수출 실적을 거두었다. 한국산 화장품의 서유럽을 통한 루마니아 간접 수출에서 한국-루마니아 직접 수출로 전환된 수출 성공 사례이다.

3) 화장품 B사

부쿠레슈티 무역관은 온라인 전시회, 화상상담을 통하여 B사와 메이크업 제품회사를 찾고 있던 루마니아 바이어 연결을 지원하였고, 루마니아 바이어는 B사 제품(필 및 글리터 有)이 주로 10대 및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시장 반응 확인이 어려워 협업을 주저하였다. 무역관은 루마니아 바이어가 Korea Beauty week 행사(소피아 개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실제 쇼핑센터에 진열된 B사 제품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한 바이어는 립스틱, 아이 쉐도우, 아이라이너 등 메이크업 제품 첫번째 발주를 진행함(약 10,000 USD). 해당 제품은 루마니아 바이어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하였다.

나. 실패사례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996년 6월부터 한국-루마니아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3개월(90일 이내 체류) 체류 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단,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의 방문에 한하며 영리 활동 목적이거나, 해당 기간 초과 체류 시에는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루마니아는 쉥겐 조약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루마니아에서 다른 EU 국가 방문 시 출입국 심사가 필요하여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루마니아 입국에 필요한 비자는 종류에 따라 관광 비자와 비즈니스 입국 비자(상용 비자), 가족 비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한국인에게 주로 발급하는 비자는 학생 비자와 비즈니스 입국 비자(상용 비자)가 대부분이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필요 서류를 갖춰 대사관에 제출 후 발급받게 된다.

루마니아의 장기체류(90일 초과)비자는 D 비자이다.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비자 만료 최소 30일 이전에 추가로 현지 관할 이민국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졌으나 2020년 8월 6일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재허용 되었다.

1) 경제활동비자 (D/AE)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직업교육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긴급법령 44/2008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전문직 비자 (D/AP)

루마니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직 면허 및 인증서와, 유사한 전문행위를 출신국에서도 수행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3) 상업비자 (D/AC)

외국인 중 루마니아 법인의 주주/경영진이 되거나 될 예정인 자에게 발급된다. 루마니아 산업통상부 (Ministry of Business Field, Commerce and Enteprenoship)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급된다.

4) 취업비자 (D/AM)

취업 입국비자, 즉 상용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 취업 증명서와 루마니아에서 거주할 집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인적 사항(회사명, 성명, 여권 번호, 생년월일, 여권 만료일)과 루마니아 방문 목적이 명기돼 있어야 한다.

5) 학생비자 (D/SD)

보통 단수로 발급되며, 루마니아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숙사 예약 증명서나 루마니아에 숙박 편의 제공 보장서를 제출해야 한다. 루마니아 도착 후, 이민국에 가서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가서 거주증을 받으면 된다.

6) 파견근무 비자 (D/DT)

외국 법인 피고용인의 루마니아 파견근무 시, 비자발급을 위해 파견근무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a) EU, EEA, 스위스 연방 법인의 피고용인이며, 해당 국가에 적합한 거주 허가를 가진 경우

b) 루마니아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미리 허가된 교육, 과학 등 관련 근무를 하는 경우, 루마니아 문화부 산하 기관에서 미리 허가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c) 루마니아 행정기관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비자의 연장

고정 거주지 없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루마니아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인 1회에 한해서 9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비자 유효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전 해당 거주지 관할 도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담당자마다 비자 연장과 관련한 신청 서류, 연장 허용 횟수,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류하고 있는 비자 연장 담당자를 면담해 문의해야 한다.

비자 상세정보 및 구비서류 정보 - <http://eviza.mae.ro/TypeOfVisa>

○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및 자가격리 공지 : 루마니아 정부는 '22.3.11일부로 코로나 19 관련 입국제한 조치 및 자가격리 조치 전면 해제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루마니아 국민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외국인이 10,000유로(10,000유로 포함)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루마니아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10,000달러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2) 휴대품 면세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직업용 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를 제외되고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타 별도의 승인(신고)을 요하는 반입물품

- 동식물 및 그 추출물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기·탄약·폭발물, 방사능 관련 물질, 영화필름 등은 각각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루마니아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0-21-230-7198
주소	Sky Tower Building S.R.L, Calea Floreasca 246 C, Bucuresti, 33층
홈페이지	http://rou.mofa.go.kr

○ 재루마니아 한인회

전화번호	+40-729-174-745
주소	Strada Mircea Zorileanu nr 89. sector 3. Bucureti, Romania
홈페이지	http://homepy.korean.net/~ro/www/

<자료원 : 주 루마니아 한국대사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루마니아 외무부

전화번호	+40-21-319-2108
주소	Aleea Alexandru 31
홈페이지	http://www.mae.ro

○ 루마니아 법무부

전화번호	+40-372-041-999
주소	Strada Apolodor 17
홈페이지	http://www.just.ro

○ 루마니아 교통부

전화번호	+40-21-391-6100
주소	Bulevardul Dinicu Golescu 38
홈페이지	http://www.mt.gov.ro/web14/

○ 루마니아 투자청

전화번호	+40-37-249-2684
주소	152 Calea Victoriei Str, Bucharest 010096
홈페이지	www.investromania.gov.ro

○ 부쿠레슈티 시청

전화번호	'+40-21-305-5555
주소	47, Regina Elisabeta Boulevard, Bucharest, Code: 050013
홈페이지	www.pmb.ro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4.6885(루 중앙은행 2022년 평균환율)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33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1.730
3	식품	된장찌개백반	1인분	14.93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14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82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49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020
8	의료	항생제	12정	6.4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640
10	교통	지하철요금	2회권	1.260
11	교통	택시요금	1km	0.47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0.66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92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1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5.330
16	여가	담배	1갑	5.230
17	여가	소주 (한식당 내 판매가)	360ml	13.890
18	임금	최저임금(시간당)	법정최저	3.24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244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160
21	식품	쌀	1kg	2.880
22	식품	식빵	한묶음	1.060
23	식품	고기	1kg	13.350
24	식품	계란	10개	4.050
25	식품	우유	1L	1.420

26	식품	식용유	1L	2.24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280
28	주거	수도세	m ³	0.960
29	주거	가스비	m ³	0.01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41.590
31	의료	일반 진료비	초진	87.45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170.63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43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루마니아 → 한국)	분	2.13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월 정액 요금제(기본 통화 및 데이터)	7.42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8.570
37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12.80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6.40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겨울코트	8.06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5.000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론(Ron) 또는 레이(Lei)이다. 지폐로는 1, 5, 10, 50, 100, 200 Ron이 사용되고 있고 동전으로는 1, 5, 10, 50 Bani가 사용되고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 공식적인 환전소에서 수시 가능하나,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의 환전은 적용 환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로 대부분은 시중 비공식 환전소를 이용한다. 환전 시는 2~3명의 환전상에게 물어본 후 환율 비교를 한 후 환전하도록 한다. 모바일 뱅킹의 보급으로 현지 은행 계좌가 있다면 론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며 즉석에서 계좌이체를 하여 편리하게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이용

유로 카드나 달러 카드로 사용하면 그날 환율이 적용되어 결제된다. 신용카드 이용에는 문제는 없다. 신용카드보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현금카드(Debit Card)를 사용하는 고객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형 쇼핑몰이나 대부분 상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소형 상점 등은 카드를 받지 않고 시내 체류 시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현지화는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 교통체증

- 부쿠레슈티는 EU 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분류되며 루마니아는 EU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이다. 부쿠레슈티 인구는 200~300만인데 시내에 등록된 차량은 130만대에 육박한다. 이에 반해 교통 인프라는 EU내 최악의 수준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 대중교통

- 루마니아는 치안이 안전한 국가로 대중교통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 버스, 트램 등의 경우 티켓 구매 시 안내원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기 출장 외국인인 가격이 저렴한 택시(우버)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지하철의 경우, 별도 티켓 구매 없이 애플페이 등으로 탑승구 통과가 가능하다.

버스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탑승할 때마다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는데 한 번 찍을 때 요금은 1.30 lei이다. 버스 중 Express버스(780, 783)가 있는데 이 버스들은 공항버스라 요금이 3.50 lei이다. 버스의 시간대를 알고 싶다면 <http://stbsa.ro/eng/index.php>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택시

택시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전화로 불러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이 아주 저렴한 편이다. 택시 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가 적용되며 기

본요금은 택시회사마다 다르나 평균적으로 1.70 Ron이다. 하지만 요즘은 기본 택시보다 우버나 택시 파이 등 택시 앱들이 깨끗하고 편리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지하철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Metro)이 있다. 티켓은 지하철역마다 기계가 있는데 2회, 10회권을 끊을 수 있고 한 달 정기권도 있다. 2회권은 5레이(약 USD 1.28)이고 10회권은 20레이(약 USD 5.35), 한달정기권은 80레이(약 USD 17.1)이다.

다. 통신

핸드폰

주요 통신사는 Vodafone, Orange, Cosmote, Telekom이 있다. 유심칩을 사서 한 달마다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요금은 통신사마다 다르다.).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요금제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편이 좋다. 시내 곳곳에 지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전화, 인터넷, TV)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여권 또는 체류증,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기세 혹은 은행명세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와이파이)

루마니아 유선 인터넷 속도는 전세계 5위에 해당되는 등 무선 인터넷 속도는 빠르다. TV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넘겨받은 후 명의만 바뀌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러면 신청 및 가설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가격 등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TV+인터넷+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패키지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50~100유로(200~400 lei) 정도이다. 각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라. 관광명소

○ 드라쿨라 하우스(BRAN CASTLE)

도시명	Bran
주소	Str. General Traian Mosoiu, nr. 24, Bran, Romania
운영시간	월요일 : 12:00~16:00 화~일 : 9:00~16:00 마지막 입장시간 : 16:00
휴무일	휴무없음
명소소개	흡혈귀로 알려진 드라쿨라는 실존 인물로 동유럽의 루마니아 중부 아르제슈주 쿠르데아르제슈 시에는 드라쿨라 성으로 알려진 '브란(Bran) 성'이 있다. 루마니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브란성'을 빼놓지 않고 찾는다. 루마니아 당국에서도 이미 소설, 영화, 뮤지컬 등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드라쿨라'의 유명세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 인민궁전(Palatul Parlamentului)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Strada Izvor 2-4
운영시간	3월~10월: 9:00 ~17:00 11월~2월: 10:00~16:00
휴무일	12월 25~26일, 1월 1~2일
명소소개	국회로 사용하기도 함

○ 개선문(Arcul de Triumf)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Piata Arcul de Triumf
명소소개	독립문

○ 헤러스트러우 공원(Parcul Regele Mihai I)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개선문 옆 공원
명소소개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공원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까르 구 베레(Caru' cu bere)

도시명	부쿠레슈티
전화번호	+40-726-282-373
주소	Strada Stavropoleos 5
가격	1인 기준: 15달러
영업시간	8:00~24:00
소개	루마니아 전통 식당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 한국식당

○ 서울 식당(Restaurant Seoul)

도시명	부쿠레슈티
전화번호	+40-21-667-2119
주소	Strada Aviator Mircea Zorileanu 89
가격	1인 기준: 15달러
영업시간	12:00~22:30
소개	한국 식당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그랜드호텔 (Grand Hotel Bucharest)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Bulevardul Nicolae Blcescu 4, Bucureti 010051
전화번호	40-37-201-0300
홈페이지	https://www.grandhotelbucharest.ro/en/
숙박료	1박 요금(스탠다드 룸) : 144 EUR

○ 코트야드 바이 메리엇 부쿠레슈티(Courtyard by Marriott Bucharest)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Boulevard Dimitrie Pompeiu 2A
전화번호	40-31-102-00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en-us/hotels/buhcf-courtyard-bucharest-floreasca/overview/
숙박료	1박 요금(스탠다드 룸) : 80 EUR

○ 메리어트 호텔(JW Marriott Hotel)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Calea 13 Septembrie 90
전화번호	+40-21-403-00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reservation/rateListMenu.mi?defaultTab=prepay

숙박료	1박 요금(스탠다드 룸) : 196 EUR
------------	-------------------------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루마니아는 경제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사회가 안정돼 도난 등 범죄 발생률이 낮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테러, 소매치기, 강도 및 위험도가 낮아 치안은 양호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민사책임이 다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 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3) 응급 전화번호

모든 응급신고 번호: 112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교통과 학군 등 입지를 고려

루마니아에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할 학교의 위치, 전철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루마니아는 한국에 비해 대중교통이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취학 아동이 있거나 직장에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좋다.

2) 주요 주택 중개 사이트

주택 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인 imobiliare.ro 또는 olx.ro 에 올라오는 임대 광고를 검색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부동산을 접촉하여 매물 정보를 확인한다. 인터넷이 대중화가 된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물 정보를 게재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인스펙션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주요 웹 사이트: <http://www.imobiliare.ro> 또는 <http://www.olx.ro>)

3) 주택 임대 신청 과정

○ 방문해 확인하기

-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자주 보는 것이 선불리 쉽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먼저 사전에 부동산 담당자들과 매물이 있는지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적당한 매물이 있는 경우 만나기로 약속하면 된다.

○ 계약체결후 입주전 통상 1-2개월의 보증금과 1달치 월세를 선금으로 지불한다.

전화

가까운 통신사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로는 Vodafone, Cosmote, Orange, Telekom, UPC 등이 있다. 계약을 위해서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통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전화 신청 시에 인터넷 회선을 함께 신청하면 기본요금이 저렴해지는 요금제가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압/플러그

루마니아의 경우 F 타입 230V, 2구 콘센트이다. 루마니아의 주파수는 50Hz이다.

식수

물은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도르나, 부코비나, 아쿠아, 보르세크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수도물을 마실 경우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브랜드의 회사와 연락을 해 절차를 밟는다.
중고차량 구매일 경우 차량 소유자와 연락을 해 만나 차량과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구매한다.

차량가격

루마니아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은 비싼 편이다(한국보다 싼 편). 루마니아 자동차 업체인 다치아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다치아: <https://www.dacia.ro>

운전면허 취득

- 현지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루마니아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3개월의 운전수업과 도로주행이 필수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운전학원에서 증명서를 주는데 이 증명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시험 치를 날짜를 정해서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본다.(이때 여권과 사진 등을 제출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 루마니아 입국 시 한국에서 발부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렌트 및 운전이 가능하다. 보통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BCR 은행
 - 루마니아
 - 홈페이지: <https://www.bcr.ro/ro/persoane-fizice>
- BRD 은행
 - 루마니아
 - 홈페이지: <https://www.brd.ro/>
- Raiffeisen 은행
 - 독일, 협동조합은행
 - 홈페이지: <https://www.raiffeisen.ro/>
- CEC 은행
 - 루마니아
 - 홈페이지: <https://www.cec.ro/>
- ING 은행
 - 네덜란드
 - 홈페이지: <https://ing.ro/persoane-fizice>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도 여권으로 충분히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직장인일 경우 여권, 재직증명서 등을 가져가야 하고 학생일 경우 여권, 학생증명서 등을 가져가야 한다.

계좌 개설을 위해선 은행에 사전연락을 취해 방문일정을 잡고 구비서류를 전달받는다 (여권, 거주지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및 추가 요구서류). 이후 약속된 날짜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큰 어려움 없이 당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은 약 1주일 정도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루마니아 레이, 유로화 계좌 모두 개설 가능하며, 두 개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AISB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Bucharest)

도시명	부쿠레슈티
커리큘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비 : 200 EUR○ 등록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 1st Child- € 1500: 2nd Child- € 750: 3rd Child- € 0: 4th/5th Child○ 수업료<ul style="list-style-type: none">- 6-8학년 : 22,290 €- 9-10학년 : 23,800 €- 11-12학년 : 23,830 €
홈페이지	http://www.aisb.ro

○ BSB (British School of Bucharest)

도시명	부쿠레슈티
커리큘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비 : 250 EUR○ 등록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 nursery, nursery and reception: 800 EUR- € 3000: 1st Child- € 1500: 2nd Child- € 750: 3rd Child- € 0: 4th/5th Child○ 학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nursery(전일)- 6학년: € 18778 + reservation deposit(€ 5105)- year 7~13: € 21767 + reservation deposit(€ 5105)

홈페이지	https://www.britishschool.ro/
------	---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 현지학교

o Avenor Gymnasium School

도시명	부쿠레슈티
커리큘럼	초,중
학비	10,000 유로 내외/1년
비고	부쿠레슈티 북부 위치, 2~18세 대상 사립 초,중등 교육기관

o Tudor Vianu National Informatics College

도시명	부쿠레슈티
커리큘럼	대학교
학비	없음 (공립)
홈페이지	http://portal.lbi.ro/
비고	부쿠레슈티 최고 수준의 대학교이며, 수학 및 정보기술분야에 특화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마. 병원

o 부쿠레슈티 대학 병원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Splaiul Independentei 169
진료과목	종합병원

o 응급병원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Calea Floreasca 14
진료과목	응급실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Baneasa Shopping City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Soseaua Bucuresti-Ploiesti 42D
홈페이지	https://www.baneasa.ro
비고	10:00~22:00 (월요일은 23:00까지)

o Afi Cotroceni Mall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Bulevardul General Vasile Milea 4
홈페이지	https://www.aficotroceni.ro
비고	10:00~22:00 (금, 토 23:00까지)

o Mall Promenada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Calea Floreasca 246B
홈페이지	https://promenada.ro
비고	10:00~22:00

o Unirea Shopping Center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Bulevardul Unirii 1, Bucureti 030167
홈페이지	http://unireashop.ro/home.html
비고	10:00~22:00

o Mega Mall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Încing Arena Naional, Bulevardul Pierre de Coubertin 3-5, Bucureti
홈페이지	https://megamallbucuresti.ro/

비고	10:00~22:00
----	-------------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 식품점

○ Carrefour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Soseaua Bucuresti-Ploiesti 44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08:00~22:00 (매장별 상이) 홈페이지: https://carrefour.ro/

○ K&J Center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Strada Ion Ghica 3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점
비고	10:00~20:00 (일요일 11:00~18:00) 홈페이지: https://kjcenter.ro/

○ K-FOOD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Soseaua Pipera 21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점
비고	10:00~20:00 (일요일 휴무, 토/월 10:00~18:00)

○ Metro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oseaua Bucureti-Ploieti Nr. 44D, Bucureti 061128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코스트코와 같은 회원제 매장 06:00~21:00 (일요일 08:00~18:00) 홈페이지: https://www.metro.ro/

○ Lidl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Calea Bucuretilor 52, Otopeni 075100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07:30~22:00 (매장별 상이) 홈페이지: https://www.lidl.ro/

○ Mega Image

도시명	부쿠레슈티
주소	Strada Odii 27, Otopeni 075100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매장이 매우 많으며, 대한민국의 편의점과 유사한 식료품마트 07:00~24:00 (매장별 상이) 홈페이지: https://www.mega-image.ro/

<자료원 :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없음.

10. KOTRA 무역관 안내

○ 부쿠레슈티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Sos. Bucuresti-Ploiesti, 42-44, Corp A1, Et1, 013696 Bucharest, Romania (우편번호: 013696)
- 전화번호: +40-21-233-2171
- 이메일: office@kotra.ro

공항-무역관 이동

공항: 부쿠레슈티 국제공항 otopeni(henri coanda) airport

헨리코안더 국제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약 7km 정도 거리로, 택시 승차 시 요금은 6~7유로 정도(단, 교통량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10~20분 정도 소요된다.

공항 출국장에서 나오면 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택시를 부름. Speed Taxk (RON2.99/km)나 Meridian Taxi (RON 2.59/km) 등 비교적 고객 평이 좋은 택시 선택을 권장한다.

키오스크를 통해 택시를 선택하면, 택시회사명, 택시번호, 택시 도착소요시간이 적힌 택시 승차표가 출력된다. 해당 승차표를 소지하고 승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이 부른 택시가 오면 승차 후, 목적지 주소를 보여주면 됨. 또는 우버, 볼트 등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건물 도착 후에는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1층으로 올라오면 된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ROMMEDICA (루마니아 의료기기 전시회)	2023-10-12 ~ 2023-10-14	ROMEXPO	ROMEXPO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